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권용덕 지음



독후 활동 노트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8년 차 특수교사가 안내하는 편견을 넘어 우정 쌓는 법 권용덕 지음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권용덕 지음



18년 차 특수교사가 안내하는 편견을 넘어 우정 쌓는 법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심각하지 않은’ 장애 공부

김수연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추천

백정연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저자 추천

통합교육 필독서

인성교육 추천도서

다른

다른



장애 이슈 알아보기 _____ . 3

이렇게 읽었어요 _____ . 5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_____ . 6

도전! 장애인식 퀴즈 _____ . 8

장애는 ○○이다 _____ . 12

교실 토론 대회 _____ . 13

미래의 친구에게 편지 쓰기 _____ . 14

다른출판사 블로그에서
독서지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darun_pub)



장애 이슈 알아보기

1. 책을 읽기 전 해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관해 알아봅시다. 다음 소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무슨 일일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매년 이날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진행됩니다. 2024년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단체 소속 100여 명의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밖에도 평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경찰의 강제 퇴거 조치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을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비장애인처럼 학교에 가고, 출퇴근을 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

- 1) 전국 시내버스의 반 이상이 계단버스로, 저상버스가 부족해요.
- 2)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부족해요.
- 3) 계단을 대신할 리프트는 추락 위험이 있어요.
- 4)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어 휠체어 바퀴가 끼는 경우가 많아요.

(1) 왜 매년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반복될까요?

(2) 이동권 투쟁은 왜 출근 시간대에 진행될까요?

(3) 등갓길에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은 마주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4)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2. 이동권 투쟁에 대한 주제어를 다양하게 떠올려 보세요.

#	#	#	#
#	#	#	#






이렇게 읽었어요

1.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옮겨 써보세요.
2. 위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4.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1. 다음은 장애인을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마크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찾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마크	제작 배경 및 문제점
	
	
	

2. 다음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담긴 표현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말로 바꾸어 써보고, 다른 차별 표현이 있는지 더 조사해 바꿔 봅시다.

바꿀 표현	바꿔 보기
병어리	→
외눈박이	→
절름발이	→
정신분열	→
결정장애	→
	→
	→
	→

도전! 장애인식 퀴즈

다음 퀴즈를 풀면서 책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장애가 있는 상대와의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장애를 차별이 아닌 개인적 차이로 봐야 한다.
- ③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 ④ 장애인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2. 장애를 설명하는 말로 옳은 것은?

- ① 장애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 ② 장애는 개인의 문제다.
- ③ 장애는 감기처럼 나아지는 병이다.
- ④ 장애는 그 사람이 지닌 특징 중 하나다.

3. 장애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옳을까?

- ① 장애자
- ② 장애인
- ③ 장애우
- ④ 비정상인

4.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한 행동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 ② 장애 등급별로 다르게 대우한다.
- ③ 쉬운 단어를 쓰고, 문장을 반복해 말하며 이해를 돕는다.
- ④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한 장애인이 누려 마땅한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②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 ③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
- ④ 교육받을 권리

6. 다음 중 편견은 무엇인가?

- ① 아스퍼거 증후군은 한 가지 분야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인다.
- ② 자폐성장애인은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더 쉽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
- ③ 장애가 있다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④ 서번트 증후군이 있으면 모두 천재다.



7. 자폐성장애가 있는 친구와 지하철을 탔다. 친구가 큰소리로 이야기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나무랄 때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가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한다.
- ② 친구에게 목적지와 소요 시간을 알려 준다.
- ③ 친구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며 진정하도록 돕는다.
- ④ 친구와 함께 목적지에 가기 전 역에서 내린다.

8. <보기>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 <보기> —

- ㄱ. '약시'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전맹'은 시력은 남아 있지만 보는 데 어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다.
- 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인 '점자'는 6개의 작은 점으로 이루어진다.
- ㄷ.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이용해 몸을 보호하고 방향을 알아낸다.
- ㄹ.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중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리는 표시다.

① ㄴ, ㄷ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ㄹ

9. 다음 중 청각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혀 들리지 않는 친구와는 수어 또는 필담으로 대화한다.
- ② 구화를 사용할 때는 입 모양을 정확히 하고 천천히 말하면 좋다.
- ③ 구화를 할 때는 손짓이나 몸짓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대화를 시작할 때는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어깨를 두드린다.

10. 다음 중 휠체어를 타는 친구를 도와 휠체어를 밀어줄 때 적절한 행동은?

- ① 보통 걸음 속도보다 느리게 이동한다.
- ② 휠체어 뒤를 발로 눌러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문턱을 내려간다.
- ③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 ④ 내리막길에서는 가던 방향 그대로 내려간다.

정답 : 1. ③ 2. ④ 3. ② 4. ② 5. ③ 6. ④ 7. ④ 8. ① 9. ③ 10. ③

장애는 ○○이다

1. 호주 작가 스텔라 영의 '난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TED 강연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나는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장애는 _____이다'라는 문장에 빈칸을 채워 장애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장애는 _____ 이다.



교실 토론 대회

장애인은 사회적 배려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그 예로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비장애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1.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 근거를 적어 보세요.

2. 반대 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적어 보세요.

3. 반대 측의 근거를 재반박해 보세요.

미래의 친구에게 편지 쓰기

1. 책을 읽고 난 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보세요.
2. 같은 학교, 또는 사회에 나가 만나게 될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세요.

To. 미래의 친구에게

작가의 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면 좋겠어요

이 책은 장애와 장애인에 관해 한 번쯤 떠올렸을 생각들을 통해 장애가 있는 친구와
우정 쌓는 법을 안내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겠지?', '청각장애인과
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지적장애인은 생각 주머니가 작다던데 투표를 할까?',
'자폐가 있으면 천재겠지?'처럼 막연히 고민했지만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의 답을 찾
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았던 장애인에 대한 오해
와 선입견이 녹아 사라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모두가 힘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은이 권용덕

18년 차 특수교사. 특수교육을 배운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
늘 공부하는 사람,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길을 닦아 주는 사람, 장애와 비장애 상관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지길 바라는 사람, 차별 없는 세상에서 특수교사의 역할이 없어서 얼른 퇴직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진로 이야기는 처음이야》(공저),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 《진로와 직업 지
도서: 취업했어요》(공저), 《진로와 직업 지도서: 취업할래요》(공저), 《아하! 통합교육》
(공저)을 썼으며, 발달장애인의 삶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유튜브 채널 <졸업후TV>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양서와 소설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 첫 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380여 종의 도서를 펴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독자의 자율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다른이 지향하는 책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으로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장애 앞에서 우물쭊물하는 너에게
“우리 한번 장애를 걸어 내볼까요?”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8년 차 특수교사가 안내하는
편견을 넘어 우정 쌓는 법

권용덕 지음 | 196쪽 | 값 16,000원

